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창업요인 및 자기효능감이 사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임은의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tart-up Factors and Self-efficacy on Economic Performance of Microenterprise

Eun-Eui Yim

Dept. of Social Welfare of Far East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창업요인과 자기효능감이 사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기존의 연구가 창업요인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이용자의 사회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을 포함시키고, 사업체의 경제적 성과를 수익과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세밀히 파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위해 2곳의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322부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분석 결과, 사업체 수익에는 창업업종, 창업경험, 운영기간, 창업자금, 자기효능감이, 사업체 고용인원에는 창업업종, 창업자금, 자기효능감, 교육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마이크로크레딧은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를 파악하였으며, 특히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마이크로크레딧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 창업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자기효능감, 사업체 수익, 고용창출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tart-up factors and self-efficacy on the economic performances of the microenterprise. While the existing studies focused on start-up factors, this study has the meaning that it includes self-efficacy, the psychosocial factors, divides the economic performances by the profit and the number of employees. For this study, 322 copies of answered questionnaires were taken as the data to analyze. As the results of analysis business type, experience of start-up, period of operation, start-up fund and self-efficacy had the significant meaning out of the profit and it was checked out that business type, fund and self-efficacy influenced on the employees. This study discussed the policy and practical suggestion to raise the performances of microcredit based on these results.

Key Words : Microcredit, Microenterprise, Self-efficacy, Economic Performance

Received 20 October 2015, Revised 22 November 2015
Accepted 20 Dec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Eun-Eui Yim
(Dept. of Social Welfare of Far East University)
Email: empower@kd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마이크로크레딧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소액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을 유도하는 빈곤탈피 장치로서, 1970년대 이래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회경제 개발 프로그램으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마이크로크레딧의 시장 친화적인 성격에 대한 대중들의 호응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1]. 대중의 가치를 기반을 둔 지지와 실제로도 빈곤 완화의 기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크레딧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효과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 효과 연구는 크게 효과를 무엇으로 사정할 것인지에 관한 개념적 고찰에서 비롯하여 마이크로크레딧의 개입이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에 대한 효과 측정, 그리고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인과관계 검증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는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의 영향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의 국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크레딧 효과의 영향요인으로 이용자의 창업자금을 중시하는 입장과 다양한 요인에 의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 이용자의 창업자금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은 대출로 인해 불리해 질 것 같으면 마이크로크레딧을 제공받지 않기 때문에 여타 요인은 무시할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경우 자금 접근성을 제한받거나 자금조달 비용이 과다하므로 자금제공만 된다면 빈곤완화나 소득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 이와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대출은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3]. Wydick(1999)에 의하면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들은 저학력, 고연령, 건강 미흡, 창업경력 및 기술능력의 미흡 등과 같은 인적자본의 결여 등의 특성 뿐 아니라 높은 스트레스, 낮은 자존감과 효능감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를 상당히 높게 보유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4]. 본 연구는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특성, 특히 심리사회적 측면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주목이 적극 필요하다는 문제인식 아래,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새롭게 조명,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제반 심리사회적

특성 중에서도 자기효능감에 주목한 이유는, 심리사회적 역량이 창업 성공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5], 자기효능감은 과업 달성에 있어 중요한 심리적 요소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들은 인적자본, 금융소외, 등등 복잡한 장애요소를 직면한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같은 내재된 심리적 측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서구의 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은 마이크로크레딧 효과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평가되고 있다. 곧 자기효능감은 창업성공 장벽을 극복함에 있어 주요한 탄력적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5]. 아울러 자기효능감은 창업자의 임파워먼트를 촉진하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6].

한편 국내 연구들에서는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들이 창업과정에서 직면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관심 및 주목은 미진한 실정이다. 마이크로크레딧 효과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살펴본 연구는 정영순(2008) 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자기효능감의 역할에 대한 주목을 유도하였다[7]. 그간의 관련 연구들을 참조하여 볼 때,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는 심리사회적 취약성이 심화되어 있고, 경제적 성과에 대한 자신감 상실로 자기효능감이 매우 미약하여, 이의 결과로 성과가 미흡하였을 수 있다는 평가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업요인과 자기효능감이 마이크로크레딧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이크로크레딧의 경제적 성과로 사업체 수익과 사업체 고용인원을 동시에 살피고, 그 영향요인으로 심리사회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을 포함시키고 있음으로써 한국 마이크로크레딧의 성과 측정을 포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의의 하에,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크레딧 효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찰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효과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개선에의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마이크로크레딧 및 성과에 관한 논의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대안금융, 연대금융, 사회금융, 마이크로크레딧 등 여러 용어와 개념 차원에서 구별되나, 실제로는 이를 엄밀하게 밝혀 사용하기는 어렵다. 마이크로크레딧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중에서 대출만을 제한해서 의미하며,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마이크로크레딧에서 변화·발전하여 저축, 보험, 연금, 이체까지를 망라한다[8]. 마이크로크레딧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1인당 GDP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빈곤층의 고용 창출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9].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를 위시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운영된 마이크로크레딧의 주된 목적은 빈곤탈피에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실업자 지원을 위한 영세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자영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 및 훈련지도를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등[10] 경제와 복지 수준에 따라 국가별로 프로그램의 목적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의 성과를 다룬 연구들에 의하면, 마이크로크레딧은 자영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빈곤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의 건강 및 교육, 그리고 임파워먼트가 향상되도록 도와 지역개발에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되어 있지만[6],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상존하고 있어 그 성과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의 부정적 성과는 주로 선진국에 적용된 프로그램에서 발견되는데, Sanders(2002)는 빈곤정책으로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 참여자가 창업을 하여도 1년 이내 폐업하는 수가 1/3에 이르고 있어 극소수의 빈민만이 빈곤에서 탈피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회의적이며, 성공적인 빈곤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EITC 확대, 보충적 소득보장 지원, 건강보험 등이 연계하여 제공될 때 효과가 커진다고 주장하였다[11].

다각적인 차원에서 마이크로크레딧 성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된 외국과 달리 국내의 마이크로크레딧 연구 경향은 마이크로크레딧의 적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12], 성과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마이크

로크레딧 성과를 살피는 대리변수로 마이크로크레딧 이 용업체의 생존여부 및 생존기간[13, 14], 월매출액 및 순이익, 고용창출인원[7, 15] 등 경제적인 지표들이 활용되고 있다.

경제적인 차원의 성과에 이어 사회적 성과를 규명하는 연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져[16] 이에 주목을 하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문화적 제약을 완화하고 아내와 딸의 삶이 아닌 사회구성원 역할을 개발하고 독립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임파워먼트를 도모함을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17]. 국내의 성정현·김지혜(2009)연구에서도 여성 대상의 긴급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사회적 임파워먼트 향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과적으로 까지 밝히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18].

이처럼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성과가 경제적, 사회심리적, 지역사회 차원에 걸쳐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측정 지표가 체계화되지 못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성과 차원에서 사업체 수익과 고용인원 창출을 측정하고 있는 기존 선행연구의 방법을 따르는데 제한하기로 하고, 향후 마이크로크레딧 성과 개념 및 측정에 관한 논의가 후속 연구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2.2 소액창업지원업체 경제적 성과에 관한 영향요인

마이크로크레딧의 성과에 대한 개념과 측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크레딧 성과에 관한 영향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 나가는 어려운 현실이다. 소액창업지원업체의 경제적 성과만 하더라도 매출액, 순이익, 고용인원, 생존여부 등 연구에 따라 달리 채택하고 있어 경제적 성과와 영향요인에 따른 인과관계의 설명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때문에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할 시 상세한 차이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액창업지원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창업요인과 사회심리적 요인,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정리된다.

먼저 창업요인은 창업경험여부, 창업업종, 창업자금, 운영기간을 포함한다. 이용자의 창업경험에 관해서는 과

거의 창업 경험이 많을수록 성과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이다[19, 20]. Fairlie & Robb(2009)에 의하면 유사한 업종에서의 창업경험이 인적자본 수준을 높여 자영업 지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창업업종은 창업 성과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는데, 진입장벽이 낮아 진입률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업종은 성과가 낮다고 보고된다[21]. 그러나 구체적인 업종에 대한 연구결과는 매우 다양하여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연구대상 뿐 아니라 업종 분류 및 분석시 기준변수의 설정이 연구마다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다[22]. 김경휘 외(2008) 연구에서는 업종이 월 매출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6].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음식집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창업 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13, 23].

창업 성과에 있어서 창업자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는데, 안정적인 창업자금은 폭넓은 업종선택과 풍부한 사업전략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여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4]. 국내의 연구결과 또한 창업자금의 규모와 월매출액과 순수익간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확인돼 이를 뒷받침되고 있다[25].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창업자금에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이 포함되어 있어 창업자금과 성과가 유의하지는 않으나 부적(-) 관계로 나타나기도 하였다[16].

운영기간 또한 사업체 성과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기간이 창업 초기인지 성장기 또는 성숙기인지에 따라 월 매출액과 순수익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25].

이용자의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성과에 영향을 끼친다고 나타났는데, 향상된 심리사회적 역량이 창업 성공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기존 연구들도 있다[5][6].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심리사회적 역량의 중요성으로 자기효능감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자기효능감은 과업 달성에 있어 중요한 심리적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Bandura(1989)는 특정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자기효능감으로 정의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성취해 낼 것이라는 신념을 강하게 보유하기에 특정 영역에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 행동을 지속하여 과업을 달성하게 된다[26].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이 없기에 어려운 환경에서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27].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들은 인적자본, 금융소외, 등등 복잡한 장애요소를 직면한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같은 내재된 심리적 측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은 자기효능감, 자존감, 자기에, 긍정적인 태도변화, 대인관계 증진, 커뮤니티 네트워크 및 신뢰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9],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자기효능감과 같은 긍정적 심리적 요인이 높아져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28].

소액창업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나 사회적 요인으로는 성별, 배우자 유무, 연령, 교육수준, 건강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선, 성별과 관련해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영업창업 시장에서 불리하다는 것은 일치된 주장이다. 특히 젠더와 소규모 자영업창업의 성과에 대해 독보적인 연구를 수행한 Losocco(1991)에 의하면 여성 창업자는 구조적으로 취약한데 이는 여성으로서의 개인적 특성, 가족적 상황, 사업적 요소가 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라 설명하였다[29]. 창업의 경제적 성과를 매출액, 순수입, 생존여부 어떠한 것으로 측정하는 여성 자영업자들이 남성에 비해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0, 31]. 또한 성별은 배우자 유무와 상관있는데 여성 자영업자들의 경우 실질적인 부재 포함 배우자가 없을 경우 생업 전면에 부상하는데, 무배우자의 경우 유배우자 보다 종업원 관리, 고객 관리, 사업상 교제, 마케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회적 편견이나 집안일 병행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창업시 연령은 많은 기존 연구에서 창업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변인이다[14, 16, 22]. 김경휘 외(2008)는 업체의 매출액으로 측정된 창업성과에서 연령과 창업성과는 부적 관계로 연령이 많을수록 창업 성과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16]. 그러나 업체의 생존여부와 관련해서 창업성과를 살펴 본 임은의 외(2015)는 연령이 낮을수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이는 연령이 노동시장에서 자영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14]. 이와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폐업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한 박미현 외(2013)는 50대 이상의 자영업자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상반된 연구결과라 보

기는 어렵다[22]. 연령과 관련해서는 창업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고한 전인오(2012)도 있기에 향후 연구결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변수라 할 수 있다[32].

한편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는 창업 성공의 장애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24]. Weber & Schaper(2004) 연구에서는 좋지 못한 건강상태는 사업의 생존과 성장을 도울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못할 경우 창업 성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3].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학력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연한이 자영업 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23], 창업 지속가능성에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2]. 임은의 외(2015)에서도 교육연한에 비례하기 보다는 전문대졸에 비해 고졸과 대졸의 경우 창업 지속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업종에 대한 숙련기술수준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주장하였다[18].

상기에 기술된 경제적 성과와 영향요인 간의 인과관계는 모든 자영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결과들을 포괄하기에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업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업체의 성과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하는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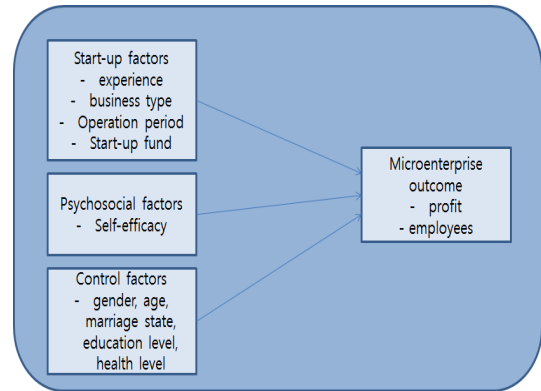
- 가설 1.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창업요소는 사업체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자기효능감은 사업체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창업요소는 사업체의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자기효능감은 사업체의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의 분석모형

본 연구는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창업요인과 자기효능감이 사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체의 성과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종합적인 성과척도가 개발되지 않아 부분적인 차원에서 규명되고 있는 연구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체의 수익과 고용인원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창업요인으로서 창업경험, 창업업종, 운영기간, 창업자금을,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주요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가지고 통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이다.

3.2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편조사 및 직접 방문을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마이크로크레딧 2개 기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할당을 하여 2013년 8월에서 2013년 10월동안 수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330부 중 부실 기재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 7부를 제외한 총 322부 만이 최종 자료로 분석되었다. 통계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첫째,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치와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각 측정변수들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창업요소 및 자기효능감이 사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3.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3.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소액창업업체 경제적 성과는 사업체 수익과 고용인원이다. 사업체 수익은 정영순(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여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월평균 값을 응답하도록 하였다[9]. 여기에서 수익은 매출액에서 영업비, 잡비 따위의 총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을 말한다. 수익은 기본 단위가 크므로 정상분포를 위해 로그값을 취했다. 고용인원은 류만휘(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식으로[17], 조사시점에서 사업주를 제외한 유급종사자와 무급종사자를 합한 인원이다.

3.3.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창업요인과 자기효능감이다. 창업요인으로는 창업업종, 운영기간, 창업자금, 창업경험여부로 구성되었다. 창업업종은 양 기관에서 행정적으로 활용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및건설업’으로 구분하였다. 창업자금은 창업시 소요된 자금으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집계되었다. 창업자금의 경우 기본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정상분포를 위해 로그화된 값을 취하였다. 운영기간은 개업이후 조사시점까지 경과된 기간을 년 단위로 절사한 값이다. 창

업경험여부는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에서 지원받기 이전에 창업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있음’과 ‘없음’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없음’을 기준변수로 삼았다.

한편 자기효능감은 창업자로서의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적 신념의 강도를 나타낸다. 이 척도는 Markman, Balkin and Barom(2002)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으로 자신의 능력 만족, 자신 능력 인식, 장점 발견, 강한 의지, 인내와 끈기 등의 관련 5개 문항을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34].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Cronbach’s alpha = .919).

3.3.3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통제변인으로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건강수준으로 구성하였다. 연령은 조사시점 만 이를 기준으로 연속형 변수로 하였으며, 기술통계의 경우는 30세이하, 31~40세이하, 41~50세이하, 51~60세이하, 61세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교육수준은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졸이상으로 서열화된 척도를 이용하였다. 건강수준은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variance	category	number	percentage
gender (n=322)	man	102	31.7
	woman	220	68.3
age (n=318)	under 30	1	0.3
	31~40	50	15.7
	41~50	166	52.2
	51~60	86	27.0
	over 61	15	4.7
	mean(std.)	47.49(7.316)	
education (n=319)	under elementary	8	2.5
	middle school	26	8.2
	high school	146	45.8
	univ.	131	41.1
	over graduate	8	2.5
spouse (n=319)	no	200	62.7
	yes	119	37.3
health (n=316)	very bad	4	1.3
	bad	23	7.3
	average	86	27.2
	good	163	51.6
	very good	40	12.7

* 결측치에 따라 n에 차이가 있음.

(Table 2) Difference of variances

variance		profite		employee	
		mean(std.)	t/f	mean(std)	t/f
gender	man	6.45(.330)	2.603**	1.33(1.685)	.495
	woman	6.34(.320)		1.23(1.724)	
spouse	no	6.33(.305)	-3.191**	1.08(1.582)	-2.478*
	yes	6.45(.343)		1.56(1.885)	
business experience	no	6.32(.258)	-2.160*	.99(1.454)	-2.206*
	yes	6.41(.356)		1.40(1.816)	
business bype	food	6.43(.297)	.885	2.0(.195)	6.897***
	retail	6.35(.459)		.91(1.459)	
	service	6.36(.300)		1.04(1.719)	
	manufacturing	6.38(.298)		1.15(1.348)	

*p<.1, *p<.05, **p<.01, ***p<.001

4. 연구결과 및 분석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성별 남녀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10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1.7%, 여성은 22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8.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47.49세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41~50세가 52.2%(16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1~60세 27.0%(86명), 31~40세 15.7%(50명), 61세이상 4.7%(15명), 30세이하 0.3%(1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고졸이 45.8%(146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졸이 41.1%(131명)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응답자의 86.9%가 고졸과 대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졸이 8.2%(26명), 대학원졸이 2.5%(8명), 초졸이 2.5%(8명)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유무에 대해서는 무배우자가 62.7%(200명)로 유배우자 37.3%(119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건강수준에 있어서는 좋은 편이 51.6%(163명), 보통 27.2%(86명), 매우 좋은 편 12.7%(40명) 나쁜 편 7.3%(23명), 매우 나쁜 편 1.3%(4명)로 나타났다.

4.2 주요 변수와의 관계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주요 변수들의 차이 분석은 <Table 2>와 같다. 먼저 사업체 수익에 대한 이용자의 성별, 배우자 유무별, 창업경험여부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별 사업체 수익의 유의미한 차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았으며(p<.01), 무배우자에 비해 유배우자가 높았으며(p<.01), 창업 무경험에 비해 유경험자가 높은 것(p<.05)으로 확인되었다. 고용인원과 관련해서는 배우자 유무, 창업경험여부, 창업업종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무배우자에 비해 유배우자가(p<.05), 창업 무경험에 비해 유경험자가(p<.05) 고용인원이 높았으며 창업 업종 간에도 고용인원은 차이를 보였다(p<.001).

다음은 사업체 성과와 주요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서열 척도와 연속척도에 해당하는 주요 변수들을 대상으로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체 성과와 주요 변수 간 인과관계를 밝히기에 앞서 이들간에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이 요청된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3>와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3>에 의하면, 사업체 수익은 건강수준, 운영기간, 창업자금,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건강수준(p<.05), 운영기간(p<.01), 창업자금(p<.01), 자기효능감(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3) Correlation variances with profit

	age	education	health	period	fund	self-efficacy	profit
age	1						
education	-.270**	1					
health	.034	-.010	1				
period	.291**	-.026	-.008	1			
fund	-.013	.075	.038	.003	1		
self-efficacy	-.010	-.037	.064	.102	.062	1	
profit	.068	.069	.118*	.219**	.239**	.179**	1

*p<.1, *p<.05, **p<.01, ***p<.001

한편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업체 고용인원은 연령(p<.05), 교육수준(p<.01), 운영기간(p<.01), 창업자금(p<.01)과 유의미하게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밝혀 주었다.

<Table 4> Correlation variances with employee

	age	education	health	period	fund	self-ef- ficacy	employee
age	1						
education	-.270**	1					
health	.034	-.010	1				
period	.291**	-.026	-.008	1			
fund	-.013	.075	.038	.003	1		
self-ef- ficacy	-.010	-.037	.064	.102	.062	1	
employee	.117*	.204**	.007	.148**	.299**	.062	1

*p<.1, **p<.05, ***p<.01, ****p<.001

4.3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마이크로크레딧으로 창업한 사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창업요인, 사회심리적 요인이 경제적 성과인 사업체 수익과 고용인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분석에 앞서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은 <Table 5>에 제시한 것

처럼 10이하로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업체 수익과 고용인원을 설명하는 연구모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리고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18.1%와 23.3%로 나타났다.

먼저 사업체 수익을 설명하는 모형 1의 분석 결과, 창업요인 중 창업경험, 창업업종, 운영기간, 창업자금이, 사회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이 사업체 수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업요인으로는 창업 무경험자에 비해 유경험자가($\beta = .084, p<.05$), 사업체 운영기간이 길수록($\beta = .033, p<.001$), 창업자금이 클수록($\beta = .274, p<.01$) 사업체 수익이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업종의 경우 음식점종에 비해 서비스업종이 사업체 수익이 낮게 나타났다($\beta = -.101, p<.05$). 또 사회심리적 요인으로는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beta = .016, p<.001$) 사업체 수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1을 통해 창업경험, 창업업종, 운영기간, 창업자금, 자기효능감과 사업체 수익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절대값으로 측정)을 살펴본 결과, 창업자금, 서비스업종, 창업유경

<Table 5> Result

variance	modell : profit			model2 : employee			
	β	t	VIF	β	t	VIF	
start-up factor	business experience(base:no) yes	.084	2.064*	1.135	.197	1.010	1.127
	business type(base:food) retail	.001	.046	1.097	-.399	-3.528***	1.444
	service	-.101	-1.915*	1.075	-.714	-2.810**	1.083
	manufacturing	-.019	-.333	1.403	.416	.965	1.378
	period	.033	3.215***	1.174	.089	1.812	1.170
psychosocial factor	fund	.274	3.116**	1.050	1.768	4.230***	1.050
	self-efficacy	.016	3.368***	1.081	.047	1.954*	1.084
control factor	gender(base:man) woman	-.085	-1.729+	1.573	-.022	-.092	1.515
	age	-.002	-.514	1.343	.021	1.479	1.372
	education	.037	1.452	1.108	.579	4.729***	1.128
	spouse(base:no) yes	.054	1.141	1.595	.371	1.650	1.526
	health	.027	1.196	1.072	-.043	-.401	1.065
constant		3.685			-15.492		
R ²		.181			.233		
F		4.814***			7.150***		

주:*p<.05, **p<.01, ***p<.001

험, 운영기간, 자기효능감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체 고용인원을 설명하는 모형2의 분석 결과, 창업요인 중 창업업종, 창업자금, 사회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 그리고 창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학력이 사업체 고용인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업업종에 있어 음식업종에 비해 도소매업종이나 서비스업종의 고용인원이 낮게 나타났다($\beta = -.399, p < .001$; $\beta = -.714, p < .01$). 반면 창업자금이 많을수록($\beta = 1.768, p < .001$),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beta = .047, p < .01$), 창업자의 학력이 높을수록($\beta = .579, p < .001$) 고용인원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2를 통해 창업업종, 창업자금, 자기효능감과 사업체 고용인원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창업자금, 서비스업종, 학력, 도소매업종, 자기효능감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창업요소 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5. 논의 및 결론

한국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은 미소금융과 지자체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는 마이크로크레딧이 단순히 빈곤탈피와 고용증진의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연구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특별하게도 심리사회적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성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주제가 간과되어 왔음을 주목하고 마이크로크레딧 참여자의 다양한 요인과 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수행 연구의 제한으로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중 두 개 기관을 유의표집하였으며, 해당 기관의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회수된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실태, 경제적 성과 수준,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연구 결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성과 중 사업체 수익에는 창업경험, 창업업종, 운영기간, 창업자금,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창업 무경험자에 비해 유경험자가, 음식업종에 비해 도소매업종이 사업체 수익이 낮았으며, 운영기간이 길수록, 창업자금이 클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업체 수익이 높았다. 고용인원에는 학력, 창업업종, 창업자금,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음식업종에 비해 도소매업종과 서비스업종이 고용인원이 낮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창업자금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고용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첫째 사업체 수익과 고용인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그것의 산출 결과인 성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주목하고, 프로그램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 또한 각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사업체 지속기간, 매출액, 수익, 고용인원, 수급탈피 등의 개별 변수들이 함의하는 바가 다르므로 연구 목적에 따른 변수 선정이 필요하며, 향후 이들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도 제언하는 바이다.

둘째, 사업체 수익과 고용인원 모두에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창업 특성과 심리사회적 특성에 해당하는 개별 변수들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창업자금 만으로 창업 성과를 낼 수 없음을 입증하였다. 마이크로크레딧 접근 중 창업자금만을 제공해도 된다는 금융접근 과와 창업자금 뿐만 아니라 경영적인 요소와 심리사회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복지접근 과의 대립된 주장 속에서 창업시장이 어려운 한국 상황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은 복지접근 방식이 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재정자립에는 위험하지만 이용자의 효과에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 통합적인 방식의 지원체계를 위해 정책차원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특별히 자기효능감은 사업체 수익과 고용인원 두가지 모형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이크로크레딧 성과에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학술적, 정

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주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사업에서 창업 성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의 자기효능감과 심리사회적 역량의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함에도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축소되거나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심리사회적 역량제고를 위한 방안들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이용자의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서는 실천 현장에서 이용자의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 전략이 보다 다각화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이용자의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임파워먼트 실천 방법의 도입 및 활용이 적극 필요하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측면에 대한 정보들이 포괄되지 못하고 자기효능감 위주의 집중이 이뤄졌으나 향후 보다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바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는 일부 기관에 국한된 점에서 모든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이용자를 분석범위에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MicroTest 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는 인구사회적 특성과 창업 특성과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특성이 사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작용함을 명백히 입증함으로써 프로그램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주었다. 향후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교육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강화와 이러한 프로그램에 개별 참여자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Copestake, J., "Inequality and the polarizing impact of microcredit:evidence from Zambia's copperbelt, J. Int. Dev., pp743-755. 2002.
- [2] de Mel, Suresh, David McKenzie, and Christopher Woodruff, "Returns to Capital in Microenterprises :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3(4): 1329 - 1372, 2008.
- [3] Kabeer, N. "Is microfinance a 'magic bullet' for women's empowerment" Analysis of findings from Sough Asia, Econ, Polit, Wkly, pp4709-4718, 2005.
- [4] Wydick, "The effect of microenterprise lending on child schooling in Guatemala", Econ. Dev. Cult, Change 47,pp853-869. 1999.
- [5] Clark, P., and A. Kays, "Microenterprise and the Poor: Findings from the Self-Employment Learning Project Five-year Study of Microentrepreneur", Washington, DC: the Aspen Institute, 1999.
- [6] Clark, P., and Huston, T. "Assisting the smallest business: Assessing microenterprise development as a strategy for boosting poor communities", an interim report, Aspen Institute, 1993.
- [7] Young-Soon, Chung, "A Path Analysis of the Impact of a Micro-Enterprise Support Program on the Participants Increased Income and Independence from Public Assistance, Social Security", Vol.24, No.4, pp89-115. 2008.
- [8] Eun-Eui, Yim, Eun-Ju, Park, "Policy Changes on the Microcredit in Korea,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3, No.1, pp.234-246, 2013.
- [9] Gonzales-Vega, "The New Development Finance", Economics and Sociology Occasional Paper, No.2398, The Ohio State University, 1997.
- [10] Edgcomb, E. and Klein, J. "Opening Opportunities", Building Ownership, Fulfilling the Promise of Microenterprise in the United States, The Aspen Institute. 2005.
- [11] Sanders, "The Impact of Microenterprise Assistance Programs: A Comparative Study of Program Participants, non-participants and other low-wage worker", The Social Service, Vol. 76, pp321-340, 2002.
- [12] Soo-Young, Kim, Byung-Heon, Park, "A Study on the Social Values of the Micro-Credit: Focusing on the case study using SROI model. Social Welfare Policy", Vol. 38, No. 1, pp 277-304. 2011.
- [13] Young-Soon, Chung, Yon-Kyung, Song, "Survival Probability and Multivariate Survival Analysis of Micro-enterprises after Start-ups, Social Security ", Vol. 24, No.1, pp307-332, 2008.

- [14] Eun-Eui, Yim, Hyun-jung, Park, Eun-ju, Park, "The Study on Survival of Microcredit Start-up: Focused on the Poor Single Mother, Women's Studies Forum", Vol. 87 No.2, 2015.
- [15] Man-Hee, Ryu, "The study of the outcome for the labor welfare program: Micro-enterprise Program, Social Science", Vol.24 No.1, pp41-62. 2008.
- [16] Kyoung-Huy, Kim, Jung-Im, Hwang, Yun-Kyu, Ryu,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ects of Self-Employment of Women in Poverty: Focusing on Economical or non-economical Effects, Women's Studies Forum", Vol. 1, No. 74. pp105-138, 2008.
- [17] Wakoko, F. "Microfinance and women's empowerment in Uganda: A Socioeconomic approach",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2003.
- [18] Jung-Hyun, Sung, Ji-Hae, Kim,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Micro-Credit Loans for the Low-income Female Heads : The Case of "urgent support cash sos project" of Korean Women Fund, The Korea Social Welfare Research", Vol. 21, pp173-2002, 2009.
- [19] Taylor, M. P., "Survival of the fittest? An analysis of self-employment duration in Britain. *The Economic Journal*", 109, C140 - C155, 1999
- [20] Fairlie, R. W. and Robb, A. M., "Gender Difference in Business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Owners Survey", *Small Business Economy*, 33(4), pp375-395, 2009.
- [21] Bruderl, J., Preisendorfer, P., & Ziegler, R. "Survival chances of newly founded business organiz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 227 - 242.1992.
- [22] Mi-Hyun, Park, So-Hee, Kim,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for Survival Probability of Self-Employment Start-ups of Old Age Women, Social Science", Vol. 39, No.3, pp99-122, 2013.
- [23] Ju-Mee, Sung, Ju-Yub, Ahn, "Determinant Factors on Economical Outcome and Subjective Evaluation in Small Business, Labor Policy", Vol. 2, No.3, 2002.
- [24] Vesper K. H., "New Ventures Strategies", Englewood Cliff NJ:Prentice Hall, 1990.
- [25] Sung-Han, Chung, Hae-Ryong, Kim, "An Exploratory Study on Success Factors in Small Business Startups, Venture management", Vol. 4, No.20, pp9-20, 2001.
- [26] Bandura, A. "Regulation of cognitive processes through perceived self-efficacy, *Developmental Psychology*". No.25, 1989.
- [27] Bandura 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1986.
- [28] Raheim, S. and Alter, C., "Self-employment as a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tervention for recipients of AFDC",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5(1-2), pp41-61, 1995.
- [29] Loscocco, Karyn A., and Joyce Robinson. "Barriers to women's small-business success in the United States. *Gender & Society*" 5:511-32. 1991.
- [30] Mi-Ja, Lee & Jung-Gyu, Kim, "T도 Effec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ucc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1, No.9, pp56-65, 2013.
- [31] Yeon-Jeong, Kim & Byung-Soo, Noh, "A Study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ffect on the Self-Leadership an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6, pp23-31. 2012.
- [32] In-Oh, Jeon, "Established business start-up support Impact on The youth of busines perform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11, pp103-114. 2012.
- [33] Weber, P. and Schaper, M., "Understanding the grey entrepreneur. *Journal of Enterprising Culture*", 12, 147-164. 2004.
- [34] Markman, G. D., D. B. Balkin and R. A. Barom, "Inventors and New Venture Formation: The Effects of General Self-efficacy and Regretful Thinking",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7(2), 2002.

임 은 의(Yim, Eun Eui)



- 1992년 2월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사)
- 200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관심분야 : 마이크로크레딧, 사회적기업, 사회복지조직, 노인복지

· E-Mail : empower@kdu.ac.kr